La création du monde

- □□

정보

개요
곡명: La création du monde, Op. 81a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장르: 단막 발레 음악
작곡 시기: 1922–1923년
초연: 1923년 10월 25일 Paris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Ballets suédois, Vladimir Golschmann 지휘
대본 ·무대: Blaise Cendrars 대본, Jean Börlin 안무, Fernand Léger 무대 ·의상
성격: 아프리카 창조 신화의 발레 서사를 알토 색소폰, 피아노, 복합 타악군과 소규모 현악이 맡는 재즈풍 실내 앙상블로 구현한 작품

IMSLP: La création du monde, Op. 81a

Wikipedia: La création du monde

Darius Milhaud의 La création du monde, Op. 81a는 Blaise Cendrars의 창조 신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단막 발레 전곡이다. 이 발레는 1923년 Ballets suédois 초연을 위해 마련된 실내 앙상블용 원작이며, 음악은 Ouverture에서 출발해 Le chaos avant la création, La naissance de la flore et de la faune, La naissance de l'homme et de la femme, Le désir, Le printemps ou l'apaisement 순으로 여섯 구간을 연속해 이어 간다. 알토 색소폰과 피아노, 한 명이 맡는 복합 타악군, 비올라가 빠진 현악 편성이 재즈의 리듬과 프랑스식 대위법을 창조의 무대 서사에 결합한다.

발레의 제작과 작품 범위

Milhaud는 Ballets suédois의 의뢰를 받아 Cendrars가 쓴 창조 이야기의 시나리오에 음악을 붙였다.
무대에서는 세 창조 신이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을 불러내고,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 욕망과 결합의 춤을 거친 뒤 봄과 평온의 상태에 이른다. Jean Börlin의 안무와 Fernand Léger의 무대 ·의상은 이 연속적인 변화를
시각적 움직임과 기하학적 형태로 조직했다.

작품은 성악을 사용하지 않으며, 여섯 구간이 별도 악장처럼 끊기기보다 하나의 단막 발레 호흡을 만든다. BnF 와 IRCAM은 작곡 연도를 1923년으로 적고, IMSLP와 원자료는 1922–1923년으로 제시한다. 작곡 시기는 1922–1923년으로, 완성 ·초연은 1923년으로 기록된다.

출판 정보와 판본

초기 출판은 두 매체로 나뉜다. Max Eschig는 1923년에 4손 피아노판을 냈고, 관현악 총보는 1929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BnF에는 Paul Collaer와 Roger Désormière에 대한 헌사와 함께 이 서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Op. 81a는 발레 전곡을 가리킨다. 같은 작품번호의 4손 피아노판은 전곡의 축약 매체이고, Op. 81b로 불리는 피아노 5중주용 모음곡은 별도 편곡 ·작품이므로 두 범위를 합쳐 세지 않는다. 연주회에서 무대 없이 들을 때에도 기준은 발레 전곡의 여섯 구간이며, 피아노 축약판과 Op. 81b 모음곡은 별도 범위로 남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5–16분이다. IMSLP와 IRCAM은 약 15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6분으로 제시하며, 연결된 여섯 구간의 빠르기와 반복 여부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진다.

편성

작품의 실내 앙상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플루트 2(한 명은 피콜로 겸임), 오보에, 클라리넷 2, 바순, 알토 색소폰
호른, 트럼펫 2, 트롬본
피아노
팀파니 5, 복합 타악기 1명: 심벌즈, 드럼 세트, 금속 블록, 작은북, 테너드럼, tabor, 탬버린,
우드블록과 큰북 계열 악기
바이올린 2, 첼로, 더블베이스

비올라는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합 타악기 주자는 한 파트 안에서 여러 북과 금속 타악기를 바꾸어 연주하며, 팀파니 다섯 대가 발레의 무게를 보탠다. 자료에 따라 이 앙상블을 17명의 개별 연주자 또는 18개 악기로 세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복합 타악기를 묶는 방식에 따른 표기 차이이며, 세부 악기 목록은 같은 핵심 편성을 보여 준다.

여섯 구간의 연속적 진행

1. Ouverture: Modéré

알토 색소폰과 관악이 어둡고 정적인 선율을 열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세계를 암시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이 도입을 재즈 프렐류드로 설명하며, 색소폰 주제가 작품의 첫 음색과 리듬 감각을 동시에 제시한다고 해설한다.

2. Le chaos avant la création

더블베이스와 낮은 음역이 앞 구간의 선율을 이어 받아 혼돈의 공간을 만든다. 느린 움직임 속에서 재즈풍
화성과 대위적 진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며, 뒤에서 나타날 생명의 증식을 위한 시간적 여백을 마련한다.

3. La naissance de la flore et de la faune

식물과 동물이 차례로 생겨나는 장면에서는 짧은 선율과 리듬이 서로 겹친다. 오보에의 명상적인 선율, 현과 피아노가 만드는 춤, 관악기의 응답이 한 덩어리로 고정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생명이 늘어나는 과정을 음악의 결합으로 들려준다.

4. La naissance de l'homme et de la femme. Vif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면 음악의 운동이 더욱 빠르고 선명한 춤으로 바뀐다. Vif의 추진력은 앞선 창조의 재료를 인간의 몸짓으로 옮기며, 관악과 타악의 짧은 제스처가 빠른 몸짓을 강조한다.

5. Le désir

두 인물의 끌림과 결합을 다루는 구간이다. 피아노, 타악기, 관악기와 짧은 현악 선율이 촘촘한 리듬을 만들고, 반복과 겹침이 욕망의 에너지를 무대의 움직임으로 확장한다. Brussels Philharmonic은 이 대목의 블루스
음형과 재즈 리듬이 장식적 인용이 아니라 전체 진행을 조직하는 재료라고 설명한다.

6. Le printemps ou l'apaisement

마지막 구간은 앞선 혼돈과 욕망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짧은 서정적 코다다. 오보에 선율과 부드러워진 현악 · 피아노의 움직임이 봄과 평온의 이미지를 만들며, LA Phil은 이 선율에서 블루스와 Milhaud의 프로방스 목가 음악이 만나는 색채를 듣는다. 창조의 서사는 이 완화된 호흡에서 닫힌다.

재즈와 대위법의 결합

Milhaud의 재즈 경험은 한 번의 여행 일화가 아니라 이 작품의 편성과 진행을 결정한 작곡 배경이다. 그는 1920년 London에서 미국 재즈 밴드의 연주를 들은 뒤, 1922–1923년 New York와 Harlem의 클럽 ·
댄스홀에서 경험을 넓혔다. Brussels Philharmonic은 이 접촉을 Billy Arnold's Novelty Jazz Band와 여러 Harlem 공연장의 기억으로 설명한다. 파리로 돌아온 Milhaud는 색소폰, 피아노, 복합 타악기, 관악과 짧은 현악을 묶어 그 음향을 Ballets suédois의 무대에 맞게 다시 구성했다.

대위법은 도입과 혼돈에서 재즈 프렐류드와 푸가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반복과 겹침을 통해 창조 과정의 증식을 연결한다. LA Phil이 설명하듯 짧은 선율이 차례로 나타나고 겹쳐지는 방식이 생명의 출현을 음악적으로 나타낸다. 관악과 현악의 선율이 피아노와 타악의 박동 위에 겹치면서, 재즈의 시간감과 프랑스식 대위법이 하나의 실내 앙상블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무대 서사와 1920년대 파리의 시선

Cendrars는 자신의 L'Anthologie Nègre에 실린 창조 이야기를 Ballets suédois의 단막 무대에 맞춰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Léger는 아프리카 가면과 흙빛을 연상시키는 색채를 입체파적 형태와 결합했고, Börlin의 안무는 식물 ·동물 ·인간의 출현을 연속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만들었다.

이 무대의 재즈와 아프리카 이미지는 1920년대 Paris의 예술적 실험과 이국주의적 시선 안에서 형성되었다 . 따라서 La création du monde는 유럽 현대음악이 재즈를 구조의 재료로 받아들인 사례이면서 , Cendrars와 Léger가 아프리카 창조 신화를 파리의 무대 언어로 옮긴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작품의 음악적 추진력과
무대의 문화적 시선은 같은 제작 맥락에서 함께 드러난다.

초연 ·수용과 녹음

1923년 10월 25일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서 열린 초연은 Ballets suédois의 제작으로 이루어졌고 ,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했다. Brussels Philharmonic은 당시 오케스트라를 17명의 개별 연주자로
설명하며 알토 색소폰의 존재를 중심적인 음향 특징으로 꼽는다. 초연 직후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이후 점차 재평가되어 작품은 레퍼토리에 남았다.

DariusMilhaud.com의 음반 기록에는 Milhaud가 지휘한 1932년 녹음, Charles Munch와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녹음, Arthur Weisberg와 Contemporary Chamber Ensemble의 녹음이 비교 대상으로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작곡가 자신의 지휘를 담은 초기 녹음과 대형 교향악단 ·실내 앙상블이 남긴
녹음 사례를 한 자리에서 보여 준다. 녹음마다 색소폰 ·피아노 ·타악기와 소규모 현악의 균형을 다르게 제시하며, 작곡가 지휘 ·대형 교향악단 ·실내 앙상블이라는 서로 다른 연주 조건을 비교하게 한다.

주요 자료

Los Angeles Philharmonic, La création du monde 작품 해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La création du monde 서지 기록

IRCAM, La Création du monde 작품 데이터베이스

Brussels Philharmonic, Creation of Life 프로그램 노트

DariusMilhaud.com, La création du monde 발레 ·녹음 기록